

## ■ ( 언론 동향 ) 2021.11.11. "연합뉴스" 보도

### ○ 한전 사장 "적정원가 보상해야"..내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

한국전력[015760]이 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자구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을 병행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0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 질문에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 이라면서도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정 사장의 발언은 올해 연료비가 상승한 만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 연료비(2020년 12월~2021년 11월 평균)도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른 한전 관계자도 "작년 말부터 연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에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지도 (연료비)가 계속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연료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사장은 전기요금의 상하한 폭을 정한 데 대해 "연료비 연동 효과를 국민에 다 전가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뒤에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보람 기자 >